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4월 24일(금)
---(음력 3월 8일)---
Пятница
24 апреля 2026 г.
№ 16 (1218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4월은 환경정화의 달이다. 이 달에는 '깨끗한 금요일'과 '토요 대청소 날' 행사들이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쿠릴열도, 공공시설 정비 대상지 주민투표 개시

사할린주 전역에서 '전 러시아 환경 및 공공시설 정비 대상지 선정 투표'에 총 5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투표가 시작됐다. 사할린주에서는 6번째 참여하는 투표로 6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대상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8곳), 아나와(5곳), 네웰스크(3곳), 쿠릴열도(8곳)가 후보지가 제안됐다.

14세 이상 주민은 온라인 플랫폼(zagorodsreda.gosuslugi.ru)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구역별 최다득표 공공시설이 최종 시설 정비와 개선 지역으로 선정된다. 사할린주 주택공공행정부 장관은 "주민의 손으로 직접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재외한인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사할린 동포 정착 및 사회통합 심도 있게 논의

재외한인학회가 4월 24일(금) 삼육대학교에서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동포청년 인재 유치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할린 동포,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지속가능한 동포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사할린동포 세션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고려대 윤인진 교수의 실태에 대한 발표와 한국 외대 방일권 교수의 세대별 귀환 동기 분석을 통해, 귀환 디아스포라가 겪는 실제적인 경험과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할린동포 모국 귀환을 한·일·소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사할린주, 드론 이용해 하천 막힘 구간 104곳 확인

사할린주가 남부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항공정보수집을 완료한 가운데 주택가와 제방시설이 위협받을 수 있는 하천 정체 구간 104곳을 신속히 발견해 정체의 요인이었던 나뭇가지들을 제거하고 배수시설 준설에 나섰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드론으로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추적 관찰하고, 발견 즉시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위험이 컸던 수수야 강과 주요 배수시설은 지난 15일 정비를 마쳐 인근 주거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안전을 확보했다.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스타코브 수산청장, 사할린 수산업 발전 논의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4월 22일(수) 사할린을 방문한 일리아 세스타코브 러시아 수산청장과 만나 수산업의 발전 전망과 협력 방안, 항만의 현대화 등을 논의했다. 지역 정부 공보실은 이번 회담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사할린주는 극동 지역에서 수산물 어획 및 가공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태평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단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오조르스크에 마을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섰으며, 올해는 코르사코브 어항 현대화의 첫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작업은 수산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할린 섬 전역에는 7개의 가공공장이 건립되었다. 일리아 세스타코브 수산청장은 특히 오조르스크에 공장의 무폐기물 생산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수산청장은 "지역 정부가 대동

령이 제시한 수산물 가공 비중 확대라는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만 아니라, 가공 수준이 높은 제품을 국내 시장과 해외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리마렌코 주지사와 세스타코브 청장의 회담에서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지역 항만들의 발전이었다. 2026년 말에는 코르사코브 항구의 시설 재건이 완료될 계획이다. 작업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수산물 및 기타 화물을 위한 부두시설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수산청장은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리아 세스타코브 청장은 "코르사코브 어항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항구가 최대 가동 능력을 발휘해 화물 기지를 확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닉' 취수장 공사 마무리 단계, 올여름 가동 예정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핵심이자 최대 공공제반시설인 '유즈닉' 취수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현장을 방문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수압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가운데 5월 말까지 시운전과 주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유즈닉' 취수장은 주 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와 '로스워드카날' 그룹 간의 민관협력사업(컨세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투자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의 계획이다. 2022년 착공 당시 높지대였던 부지를 120,000m3의 암석으로 메우는 대규모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진입로 건설과 수수야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도 신설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유즈닉' 취수장은 향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5,000명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취수장의 1일 물 가동량은 20,000m³이며, 잠재적으로 32,000m³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 건설에는 사할린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학적 기술들이 도입되어 정수저장소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5000m³ 규모의 대형 정수탱크 2기와 400кВт 고출력 펌프가 설치되어 효율성을 높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안드레이 코알추크 제1부시장은 "이번 취수장 가동으로 남부 신규 주거단지와 호무토워 진료소, 학교, 유치원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로가트카' 취수장 등 다른 지역 노후 취수장의 현대화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전국 지자체상 '슬루제니예'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지난 5년간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 발전에 620억 루블리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정부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기획이 제3회 전 러시아 지자체 상 '슬루제니예(공직자 헌신상)'에서 3위를 차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요 민관협력 사례로는 '아방가르드' 복합 주거단지 내 학교 (1,260명 수용) 건립과 1만 1,500명에게 안정적인 난방을 공급하는 가스보일러실 건설 등이 꼽힌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의 인사관리 효율화 기획이 '현대적 청년 관리자' 부문에서 전국 10대

우수 사례에 선정되었다.

수상 결과는 국민투표로 결정됐다. 정부서비스 포털 '고스우슬루기'에서 160만 명 이상이 투표했으며, 전국에서 총 6만 3,39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세르게이 키리엔코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이 위원장을 한 감독위원회가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응모자 연령은 최연소 18세부터 최고령 92세까지 다양했다.

시상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매년 열리는 전국 지방자치 포럼 '작은 고향 - 러시아의 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포럼은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대표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자리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 전통 보전으로 민족 단결의 의미를 되새기다

러시아 민족들의 단결의 해를 기념하여 사할린주에서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러시아 민족 아삼블레야' 사할린지부장 마야 키릴로와는 "러시아 내 여러 민족의 전통을 알아가며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진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사할린주 어린이 도서관과 '러시아 민족 아삼블레야' 사할린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기획의 핵심 표어가 되었다.

이번 기획에 '한글'창작회의 배영희 회장과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의 리정복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글'창작회의 새로운 기획인 '전통문화 페스티벌: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기관들의 공동행사 일정과 완벽히 어우러졌다. 그리고 리정복 씨가 부른 '아리랑' 노래와 제3김나지아 초등학교 생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2026 도서관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마음과 운명'으로 하나 된 우리' 콘서트는 큰 감동



을 선사했다.

배영희 회장은 "오늘날 우리는 '언어를 아는 것이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가?', '왜 전통 민족 의상을 입을 때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더 부합하려 노력하는가?'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재능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 기획은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며, 조만간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아니와, 코르사코브에서도 관련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사진: '한글'창작회 제공)

전 세계 75개국 3만 5천여 곳에서 '승리의 받아쓰기' 개최... 한국어 시험지 첫 도입

'통합 러시아'당이 주관하는 국제 예국 행사 '승리의 받아쓰기(승리의 디탄트)'가 4월 24일 여덟 번째로 개최된다. 모스크바 승리 박물관이 주 행사장이며, 전 세계 75개국에 3만 5천여 개의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역사시험은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소련 원수인 게오르기 주코프 탄생 130주년을 기념해 시행된다. 시험지에는 주코프를 비롯한 주요 소련 지휘관들과 2026년에 해당하는 역사적 기념일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된다. 또한 특수군사작전 관련 문항이 별도로

준비되었다.

시험지는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키르기스어, 중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등 9개 언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총 10개 언어로 번역됐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승리의 자원봉사단' 3만여 명이 러시아 국내외에서 활동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키프로스, 세르비아, 레바논, 카타르 및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서도 행사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모 저 모

주아동도서관 주최 <2026-도서관의 밤> 행사에 700명 이상 참여

4월 18일(토) 사할린주 아동도서관이 <2026-도서관의 밤> 전 러시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수백 가정을 위한 매력의 중심지가 되어 어린 독자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총 700여 명이 넘게 행사에 참여했다. <민족 단결은 러시아의 힘!>을 표어로 내건 러시아 민족단결의 해를 주제로 행사 전문가들과 도서관 협력자들이 15개의 다채로운 행사장을 마련했다고 아동도서관 홍보부가 전했다.

프로그램으로 <마음과 운명으로 하나되어> 콘서트가 강당에서 시작되어 사할린의 음악인들과 무용가들의 작품 공연이 펼쳐졌다. 활동교실에서 학생들은 러시아 민족의 문화적 풍습을 익히고, 동화 속 주인공들의 지도를 만들며, 전통문양 오리기도 배우고, 나무 장난감에 색을 칠하며, 전통 생활용품과 의상 소품 만들기도 체험했다.

어린 참가자들은 <어떻게 꼬마들이 울타를 찾아갔나>라는 몰입형 연극에 열광하며 연기 활동에 참여하고, 북방 소수 민족 원주민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배웠다.

<고리니츠의 뱀: 동화인가? 실화인가?> 디지털 수업에서는 아이들에게 러시아 동화 속 괴물 형상의 기원 및 고대 공룡에 대한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증강현실 헤드셋을 이용해 중생대 시대로 떠나기도 했다.

아동도서관 1층에서는 예전과 같이 도서박람회가 열려 학부모들은 러시아 유명 출판사의 신간 우수도서들을 구매했다. <2026 - 도서관의 밤> 행사는 방문객들이 흥미롭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가족 공동의 관심사를 발견하며, 각 가정의 함께 창작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수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었다.

«Библионочь-2026» в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брала более 700 сахалинцев

В субботний вечер, 18 апрел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дет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центр притяжения для сотен семей. Всероссийскую акцию «Библионочь-2026» посетили более 700 человек: юные читатели, их родители,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Специалисты и партнеры библиотеки подготовили 15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лощадок, а сквозной темой стал Год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 «Единство народов — сила России!».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библиотеки.

Программу начали с концерта «Едины сердцем и судьбой» в актовом зале, где выступ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с музыкальными и танцевальными номерами. На мастер-классах ребят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ными обычаям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здали карту сказочных героев, учились вырезать орнаменты, расписывать деревянные игрушки, мастерить элементы костюмов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едметы быта.

Юные гости с восторгом приняли иммерсивный спектакль «Как малыши к уйльта ходили» (показали трижды), где дети сам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сценическом действии и узнавали о традициях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м занятии «Змей Горыныч: сказка или быль?» ребятам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образа чудовища в русских сказках и его связи с древними легендами о динозаврах, после чего с помощью шлемов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отправились в мезозойскую эру.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традиционно работала книжная ярмарка, где родители приобретали новинки лучших российских издательств. «Библионочь-2026» помогла гостям увлекательно и с пользой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найти общие семейные интересы и убедиться, как важно для каждой семьи духовное общение, сов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занятия и чтение книг, любимых многими поколениями.

<아이들-달콤한 것들> 연극, 사할린에서 상연

소극장 연극이 <문화 공간> 아트카페에서 청소년 관객들과 학부모들을 동심 가득한 환상과 놀이로 마법의 세계에 빠져들게 했다.

<아이들 달콤한 것들> 연극은 러시아 연방 연극배우 활동 연맹 사할린 지부와 체호브 센터와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연극이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도한 '행복한 모성의 해'를 기념하여 4월 18일(토) <문화 공간>에서 상연된 가운데 체호브센터의 나탈리아 샤르코와 배우가 이 기획의 작가와 감독을 맡았다.

나탈리아의 공연은 첫 순간부터 공연장을 신비한 환상적 분위기로 이끌었다. 배우들이 풍선을 들고 관객들에게 다가오면서 순간적으로 아이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고, 어른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했다.

연극 무대예술 감독 안나 루네고와는 간결한 무대를 음악과 봉제인형과 파스텔 색조의 의상, <문화공간> 창문의 장식 등을 더하여 시각적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이들 - 달콤한 것들> 연극은 아이들의 성장을 상징하는 4계절의 시간적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여름은 유치원에 각종 꽃들을 피게 하고, 가을은 첫 학

기에 피어나는 어린 주인공들을 만난다. 공연은 통일된 주제나 일관된 사건전개 없이 일상 속에 발견되는 작은 실마리를 삶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이야기들을 연결시킨다.

주인공인 아이들역으로 체호브센터의 크세니야 예르마코와, 일리아 로브킨, 예브게니야 무라잔, 다리아 르와초와, 알리사 장이 맡았다. 주인공들은 시인역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동감 넘치는 개성을 지닌 아이 같은 러시아 시인들을 보여 주었다.

<아이들 - 달콤한 것들> 연극의 주인공들은 바로 모든 관객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리는 살아있는 사진첩이 되었다.

나탈리아 샤르코와는 자신의 기획을 위한 문학적 기반으로 많은 어른들이 어린시절부터 기억하고 있는 소비에트와 러시아 시인들이 쓴 아동을 위한 시들을 선정했다. 연극 무대에서는 아그니야 바르토, 사무일 마르샤크, 엘레나 블라기니나, 세르게이 미할코브 시인들의 작품들이 인용되었다. 이 시인들의 시들은 가르치기 쉽고, 오래 기억하기도 쉬우며, 심오한 교육적 가르침을 전달하고, 미적 즐거움과 윤리적 유익함을 담고 있다.

Премьера постановки «Детки-конфетки» прошла на Сахалине

Камерная постановка в арт-кафе «Культурное место» погрузила юных зрител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волшебный мир детских фантазий и игр.

Спектакль «Детки-конфетки» —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ТД РФ и Чехов-центра. Премьера состоялась в субботу, 18 апреля, в «Культурном месте» в честь Год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Автором и режиссе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а актриса Чехов-центра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С первых минут ее постановка погрузила зал в волшебную атмосферу фантазии — артисты вышли к зрителю с воздушными шариками, мгновенно захватив внимание малышей и вызвав улыбки у взрослых.

Художник-постановщик Анна Лунегова создала визуально уютный мир, где лаконичную сценографию дополняют музыка, пастельные тона костюмов, плюшевые игрушки и гирлянды на окнах «Культурного места».

Структура спектакля «Детки-конфетки» построена на условной хронологии времен года,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й взросление детей. Зима уступает весне, лето расцветает в детском садике, а осень встречает подросших героев в первом классе. В постановке нет единого сюжета или сквозного действия.

(8면에 계속)

사할린 주민들, '농부 학교' 무상 교육의 특별한 기회 얻어

사할린 주민들은 '농부 학교' 무상 교육 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아그로비즈니스: 농민 및 농장 경영' 프로그램은 약 2개월 반 동안 진행되며, 식물 재배와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다. 참가자들은 재무 모델, 법적 측면, 마케팅, 협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방법을 배우고, 전문가 컨설팅과 경험 공유의 기회도 얻게 된다. 교육은 프리모르스키 국립농업기술대학교 전문가들이 디지털 플랫폼 '스위요 페르메르스트위(나의 농업)'를 통해 진행하며, 실습은 지역 내 우수 농장에서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는 창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사

할린주 농업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 또는 중등 직업교육 이수자이며,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우선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농업비즈니스 분야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료증이 수여된다.

'농부 학교' 신청은 러시아 농업은행 플랫폼 '스위요 페르메르스트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필수다. 한편 '농부 학교'는 러시아 농업은행이 프리모르스키 국립농업기술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방 교육 프로젝트다.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연준

관리번호	95047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연준	한자	金鍊俊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6)	사망년월일	(1923)
본적	함경남도 북청		

공훈록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20년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 등에서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한 일본은 대대적인 한국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그해 4월과 10월에 걸쳐 이른바 4월작전과 간도토벌(間島討伐)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연해주 등지에 있던 한국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이만을 거쳐 불세비키가 장악하고 있던 노령(露嶺) 자유시(自由市 스보보드니, 혹은 알렉세예프스크)에 집결하였다. 1921년 3월까지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독립군부대는 노령지역의 김 표도르 등의 이만군대, 최 니콜라이의 다반군대, 박 그레고리 등의 독립단(獨立團), 임호(林虎)와 고명수(高明秀)의 한인니항군대(韓人尼港軍隊 후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 일명 사할린부대), 오하묵(吳夏默)과 최고려(崔高麗) 등의 한인보병자유대대(韓人步兵自由大隊, 일명 自由大隊)와 간도지역의 최진동(崔振東) 등의 총군부(總軍府), 안무(安武) 등의 국민회군(國民會軍), 홍범도(洪範圖) 등의 독립군, 서일(徐一) 등의 군정서 등이었다.

당시 자유시는 이르쿠츠크파의 문창범(文昌範) 등이 이끄는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극동공화국(極東共和國) 인민혁명군(人民革命軍) 산하에 한인보병자유대대를 조직하고, 오하묵을 대대장에 임명하고 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따라서 1920년 10월 한인니항군대의 자유시 도착 후 이르쿠츠크파의 대한국민의회와 극동공화국 한인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동휘(李東輝) 계열의 상해파(上海派) 간에 니항군대의 자유대대 편입문제와 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즉 문창범 등이 한인 독립군부대를 자유대대 산하에 편입하였던 데 대해 이동휘 계열의 박애

(朴愛) 등은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하여 니항군대를 사할린의용대로 개칭하고 자유시에 집결한 모든 한인독립군부대를 그 관할 아래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휘 계열의 한인부에서 임명한 연대장 그레고리예프와 군정위원장 박 일리아는 종전 문창범 등이 자유대대에 편입시켰던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를 마사노프로 이주시키고 간도지역 독립군부대 역시 강제 이주시켰으며, 불응하는 자유대대 장교들을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로 하여금 체포 혹은 무장해제시켜 지방수비대로 강제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대대의 오하묵·최고려 등도 이르쿠츠크에 있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와 교섭하여 임시고려혁명군정의회(臨時高麗革命軍政議會)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에 갈란다라시윌린, 부사령관에 오하묵, 군정위원에 김하석(金夏錫)·채성룡(蔡成龍)을 임명하였다.

1921년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한 갈란다라시윌린은 7일 자유시의 전 부대를 소집하여 자신이 고려혁명군정위원회의 총사령관임을 선포하고, 8일 박 일리아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시에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1921년 6월 27일 사할린의용대 연대장 그레고리예프가 투항하자, 6월 28일 총사령관 갈란다라시윌린은 자유시수비대 제29연대를 파견하여 사할린의용대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나, 사할린의용대가 불응하자 공격명령을 내려 무장해제를 단행했다. 이 전투 끝에 무장해제를 당한 사할린의용대는 전사자·도망자를 제외한 864명 전원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다.

1921년 자유시참변 당시 이만군대 장교로 있던 그도 러시아 적군(赤軍)에게 체포되어 이르쿠츠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3년경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日報(1923. 6. 24)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430면
- 朝鮮日報(1923. 6. 24.)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430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

김이정

(전호의 계속)

규슈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배에 타고 돌아왔다. 가라후토에 가족을 두고 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석구도 만식 아버지도 그들 속에 없었다. 사람들이 물려가 자기 남편과 아들의 소식을 물었다. 누구는 노예보다 더한 고통을 못 이겨 도망치다가 잡혀 감옥에 가고, 누구는 도망치다 바다에 빠져버렸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그러나 석구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시 작은 배를 타고 사내들 열두 명이 돌아왔다.

“아마 군함도 쪽으로 갔을까. 규슈로 가는 우리와 갈라졌다 아이가.”

만식 아버지를 아는 부산 남자가 북해도에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그래도 기다림을 멈출수가 없었다. 아니 오토마리 항구에 모인 사람들은 흠여지지 않고 하염없이 배를 기다렸다. 죽은 아버지의, 남편의 유골을 파서 들고 온 사람들은 한쪽에 공동묘지를 만들고 기다렸다. 배가 오면 다시 파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일본 국민이라서 끌고 왔더니 우리도 고향으로 보내주겠지. 조선에서라도 배가 오지 않겠나. 아니 누구를 믿고 기다린단 말이나. 서로 싸우면서도 우리를 태워갈 배가 어디서든 오길 기다렸다. 오토마리 언덕에서 수평선을 바라 보며. 해염을 쳐서라도 가고 싶다며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배는 끝내 오지 않았다. 우리를 태울 어떤 배도 오지 않았고 석구도 만식 아버지도 소식이 없었다. 대신 노서아 군인들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파란 눈의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들어왔다. 그들의 땅이 됐다고 했다. 말도 알아들을 수 없고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눈이 내리는 항구는 수평선도 지워졌다. 움막을 지은 사람들은 여전히 흠여 지지 않고 배를 기다렸다. 좁고 배가 고파 아이들과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얼마 후에 조선말을 하는 통역을 데리고 노서아 군인이 와서 말했다. 일본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당신들은 해방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일본은 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고향으로 가지도 못한 채 너를 데리고 이곳 가라후토, 아니 사할린에서 살게 되었다.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국적도 없는 사람으로 말이다. 해방 후 얼마 되지 않아 조선반도가 둘로 나뉘고 내 고향은 남조선이 되었다는데 소련은 적대국이 되었다. 사할린에 남겨진 사람 들은 훗날이라도 고향으로 가려면 소련 국적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만식 엄마도 나도 모두 무국적자로 남아 살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소련 국적이 꼭 필요하다고, 너는 애원했다. 결국 너는 소련 국적을 얻었지만 나는 끝내 무국적자로 남았다.

너는 무엇보다 공부를 잘했다. 오토마리라는 일본지명이 코르사코프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항구에서 자란 너는 공부를 잘해 국가장학생으로 블라디보스톡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엄마, 우린 버림받았어요. 더 기다리지 말고 소비에트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너는 울며 애원했다. 더러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향에 연락이 되기도 한다더라만 나는 편지조차 하지 않았다. 살아 있다면 석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찾아왔을 테니까. 내가 그를 찾아왔듯이 그 역시 해염을 쳐서라도 왔을 테니. 아니 내

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게 될까봐 무서워서였는지도 모른다.

네가 대학을 간 후부터 나는 혼자가 되었다. 방학 때마다 오는 너를 기다리게 내일이 되었다. 대학을 마치고 다시 모스크바 대학으로 간 너는 살길은 그뿐이라는 듯 공부에만 매달렸다. 결국 너는 과학원 연구원이 되어 모스크바에 정착을 하고 러시아 여자와 결혼을 했다. 너는 내게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았다. 석구를 기다려야 했다. 그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 사할린을 떠날 수 없었다. 그가 죽었다면 혼령이라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여길 떠나버리면 규슈인지 군함도인지, 어디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를 석구의 영혼이 찾아갈 곳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길 떠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마지막일 것 같아 너를 불렀다. 만식 엄마도 오래전에 세상 떠나고 아흔이 넘도록 혼자 살아남은 나는 늙은 개가 온몸에 힘을 빼고 죽어가듯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사그라드는 걸 겨우 지켜보고 있다. 네가 올때까지 이 모진 목숨이 꺼지지 않고 숨을 잇고 있구나. 지금쯤 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이곳으로 오는 기차에 앉아 있을 것이다. 네 아내와 아들도 같이 온다고 했으니 3년 만에 네 가족이 함께 오구나.

준아, 네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끝내 하지 않는게 좋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목숨이 꺼지기 전에 말을 해야겠다. 준아, 네 아버지는 이석구가 아니다. 아니 이석구가 평생 자기 이름으로 산 형 이준구도 아니다. 석구가 일본 본토로 끌려간 날, 님이 나간 채로 길에 주저앉은 나를 누군가 업고 여덟이 내리는 자작나무 숲으로 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본군인이 내 아랫도리를 벗기고 이미 일을 치른 후였다. 그가 바지를 입을 때야 정신을 차린 나는 눈을 감은 채 그가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무서워서 그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 얼굴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으니까. 나는 푸른 빛이 뻑뻑이 물려온 후에야 겨우 자작나무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두 달 후 임신인 줄 알게 된 나는 죽고 싶었다. 누구의 아이인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산꼭대기에 가서 몸을 던지려고 산을 올라갔다. 그런데 중력도 못가서 나는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속엀 걸 모두 게워내고서야 깨달았다. 구토는 네가 지르는 비명이란 걸. 그런 너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네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리 늦게 연락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네 얼굴을 보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석구를 친아비로 알고 있는 네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너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부서진 마음으로 평생동안 그를 기다렸다는 걸 고백할 수가 없었다. 준아, 마지막 부탁이 있다. 이 모진 목숨 놓고 나면 나를 이 차가운 사할린 땅에 묻지 말고 저 바다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 죽어서라도 내 고향에 가고 싶은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바다 물결에 태워만 주면 알아서 내 고향으로 찾아갈테니 부디 나를 저 바다에 띄워다오. 가는 길에 일본 바닷가에서 석구를 만나 같이 손 잡고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나를 제발 저 바다에 띄워다오, 준아.

(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и моей бабушки»: сохраняя традиции, укрепляем единств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Году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тличаются насыщенностью и разнообразием.

«Узнавая 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ы станем ближе друг другу», — эти сл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айи Кирилловой стали лейтмотивом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и Ассамбле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 приня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Анжела П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Ри Ден Бок (Николай).

Новый проект ТО «ХАНГЫЛЬ» —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Истории моей бабушки» — отлично вписался в календарь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стоящим украшением встреч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Николая Ри. Исполненная им песня «Ариран» была восторженно принята как юными слушателями в гимназии № 3, так и гостями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Едины сердцем и судьбой», прошедшего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Библионочь2026».

— Сегодня мы поднимаем вопросы, не теряющие своей актуальности: помогает ли знание языка быть ближе к Корее, почему, надевая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мы стараемся более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своему культурному коду? На эти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мы отвечаем своими талантами, — подчеркнула Анжела П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екта «Истории моей бабушки» продолжатся 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й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е и Корсаков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ТО «Хангыль»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е вновь поднимают вопрос о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АКРК направила петицию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ыступила с очередной инициативой в защиту прав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водом стало введение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условиях роста цен на топливо (고유가 부담 완화 정책), из которых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рё-сарам, в том числе обладатели визы F-4 (статус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новь оказалась исключена.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АКРК направила официальную петицию на им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а обращение чере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국민신문고 и передала материалы в ведущие корейские СМИ. В центре документа — требование пересмотра действующих критериев, которые, по мнению Ассоциации, не отражают ре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чь идёт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уже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в Корее, участвуют в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ы, платят налоги, но при этом оказываются вне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добная ситуация уже возникала ранее —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купонов (민생회복 소비쿠폰), и сегодня, как отмечают в Ассоциации, происходит фактическое повторение той же модели.

С анали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облема носит не ситуативный, а системный характер. Применяемые государством критерии — регистрация, структура домохозяйства, формальный статус в системе — изнач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управляемость, а не на отражение реаль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людей.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зникает разрыв между фактическим участием корё-сарам в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ы и их правом на доступ к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в экспертной среде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исключение» — когда формально нейтральные правила приводят к системному выпадению определённых групп из политики. Именно этот эффект сегодня и наблюдается в отношении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4.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в этой инициативе име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ая функция АКРК. Организация выступает не только как объединен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о и как субъект диалога с государством, способный формулировать и доносить позицию сообщества на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Петиция стала не спонтанной реакцией, а результато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по фиксации проблем и выстраиванию аргументации на основе реального опыта корё-сарам в Корее.

Важным элементом текущего этапа стал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Объединением организаций кита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중국동포단체협의회). Совместная позиция двух крупнейших групп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усиливает вес обращения и переводит вопрос из уровня отде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плоскость более широкой диаспор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Фактически речь идёт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й модел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иаспоры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гда разные групп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чинают выступать с согласованной позицией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Это повышает не только видимость проблемы, но и её политическую значим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суждаемая ситуация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одной социальной меры. Она затрагивает базовые принцип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соответствие декларируемому курсу на «не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ую и инклюзивну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ак подчёркивают в АКРК, ключевой вопрос сегодня — это не только доступ к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но и признание того, что корё-сарам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чески, но 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еальности.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АКРК намерена добиваться более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го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подхода к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опираясь как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ресурсы, так и на расширяющее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другими диаспора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ресс-релиз АКРК)

Экономика, медицина, борьба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КНДР развивается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разу три российских министра посетили с визитом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КНДР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чему являются совпавшие визиты в Страну чучхе сразу трех российских министров. Главы ведомств обсудили активизац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экономике, охран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ерии знак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ак отмечают эксперты, все это приурочено к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ВСУ, в чем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КНДР. Кроме того, в эти же дни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стыковки пролетов н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которые соединит две наши страны.

Одними из ключевых фигур визита стали министр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РФ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ихаил Мурашко, прибывшие в КНДР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22 апреля в восточном курортном районе Вонсан-Кальма росси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ерии рабочих встреч с профиль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КНДР.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на площадке гостиницы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и были посвящены расшир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в экономике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стороны уделили проект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ольницы дружбы России и КНДР» в Вонсане. Козлов и Мурашко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минздрава РФ, «это наглядный пример неизм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на саммите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и КНДР в июне 2024 года, 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более широкой стратег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овышение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Мурашко указал, ч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е уже носит прикладной характе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ют опыт российских коллег в области кардиохирургии, трансплантологии, онкологии и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Новый госпиталь должен стать как практическим вкладом в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так и символом укреп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Параллельно в Пхеньяне проходил визит министр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Ф Владимира Колокольцева. Он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министр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НДР Пан Ду Сомом, где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сфере правопорядка. По данным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же развивается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Как отметила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ВД РФ Ирина Вол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в сферах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хра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миграции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опытом в борьбе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включа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м группам, незаконному обороту наркотиков, торговле людьми, экстремизму и терроризму.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по делам, связанным с наркотрафиком,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ить развитие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профиль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Отд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стало подписание программы обмена делегациями на 2026-2027 годы, закрепляющей регулярный характер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Колокольцев также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Чо Ён Воном. Глава МВД РФ подчеркнул совпадение позиций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е: «Нам в РФ приятно видеть, что наша позиция с КНДР по всему спектру вопрос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и дня либо полностью совпадают, либо очень близки».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развитие сам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указав, что «развивается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повышаетс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страны и укрепляется суверен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Чо Ён Вон заявил, что «визит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о главе с Владимиром Колокольцевым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расширяется и развивается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Помимо переговоров,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олокольцев возложил цветы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в Пхеньяне, где похоронены советские солдаты, погибшие при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а также посетил Музей Победы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войне.

Еще одним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а церемония стыковки пролетов н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ную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ая прошла 21 апреля. В ней в формате видеосвяз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ключая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Андрея Никитина и Александра Козлова.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основ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 2024 году между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и Ким Чен Ыном.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мечено на 19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ак отметила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Ф Мария Захарова, «Россия придает этому проекту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а сам мост станет «важной вехой в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переход обеспечит круглогодичное автомобиль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и дополнит существующий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мост, расширя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торговли, логистики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По плану новый пограничный переход смогут пересекать 300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и 2850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с возможностью увеличения этих показател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Нью-Дели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индийский саммит

20 апреля в Нью-Дели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индийский саммит.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Индии Нарендра Моди встретились сначала в формате «один-на-один», а затем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Итоги саммита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ак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пришли к общему мнению, что в эпоху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и РК и Индия могут стать оптималь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для содействия взаимному росту и инновациям.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отраслях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ключая судостроение, финансы,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оборону, а также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культурных и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достигнуто единое мнение, ч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мира в регионе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для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экономики.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подписаны 15 меморандумов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О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в частности, совместное развитие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соз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мышлен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на министерском уровне, пересмотр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СЕРА)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ой торгово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среды.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креативных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ентов,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по развитию талантов и созданию 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обмен программами в области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ыход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РК на индийский рынок. Кроме того, подписаны меморандумы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спорта, в сфере климата 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лан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и документы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назначить генерального инспектора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ачать процедуру назнач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инспектора,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поручено расследовать неправомерные действия семьи и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к заявил 19 апреля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Хун Сик, просьба Ли Чжэ Мёна вызва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усиления дисциплины сред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и повышения прозрачност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ах.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подтвердил своё предвыборное обещание заполнить пост, созданны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ак Кын Хе и оставшийся вакантным с 2016 года. Тем самым нынешни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твердил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в РК побывали 4,76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побывали 4 млн 76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на 23%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также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чё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6 апр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В марте был отмечен рекорд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месяц – 2 млн 60 тыс. человек. Эксперты объясняют эти результаты глобаль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активными усилиями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туристов как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 и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1 млн 450 тыс. челове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японцы – 940 тыс.,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жители Тайваня – 540 тыс. человек.

Жители РК назвали Korean Air лучшей авиакомпанией

Жители РК назвали Korean Air лучшей авиакомпанией по качеству обслуживания среди перевозчиков, совершающих полёты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эропорты. В их числе 10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41 зарубеж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В опросе,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о с октября по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31.168 авиапассажиров. Korean Air набрала 6,07 балла по семибальной шкале. Сред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Asiana Airlines (5,97 балла). Далее следуют Air Premia и Air Busan. Среди иностран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японская ANA, набравшая 6,03 балла, за ней следуют тайваньская Eva Air и Singapore Airlines. Среди аэропортов максимальную оценку A+ получил Кимпхо за комфорт,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алее следуют аэропорты Инчхон, Кимхэ и Чечжу.

RKI

В КНДР сообщили об испытания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 кассетной боеголовкой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КНДР сообщили детали прошедших 19 апреля запусков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с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На испытаниях присутствовал Ким Чен Ын с дочерью, а в ходе учений были протестированы ракеты с кассетными и осколочно-фугасн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ореи (ЦТАК), 19 апреля Главное раке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овело испытательные пуск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ных тактически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класса "земля - земля" "Хвасон-11 Ра". Их целью было заявлен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 и мощности установленных на них кассетных и осколочно-фугасных боевых частей.

Запуски были осуществлены с побережья в районе Синпхо. Пять ракет поразили находящийся на удалении 136 км остров. Боеголовки "с очень высокой плотностью" накрыли участок площадью в 12,5-13 га, что эквивалентно 18 футбольным полям.

За учениями наблюд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с дочерью Ким Чжу Э. Лидер остался доволен результатами и заявил, что разработка и внедрение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боеприпасов позволяют в полной мере и эффективно удовлетворить оператив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страны. Он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на расширен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ых ударов по конкретным целевым районам.

В Южной Корее эксперты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или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предоставив свои оценки.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высказанно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 возможных запусках ракет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не подтвердилось: КНДР испытывала так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класса "земля - земля".

Новшеством стало то, что впервы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данной модели ракеты - "Хвасон-11 Ра". По версии Сеула, это укороченная и мо-

дернизированная верс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аналога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Искандер". Версию с большей дальностью полета в КНДР называют "Хвасон-11 Ка", тогда как на Западе - KN-23. Измененную систему с уменьшенным радиусом и более сложной траекторией полета - "Хвасон-11 На", или KN-24. По мнению Сеула, нынешняя модель - это то, что до сих пор Пхеньян называл "новой тактической управляемой ракетой". Возможно, что она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испытаний, а потому ее названи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ее считают аналогом своей КТТSM -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ысокоточной тактиче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класса "земля - земля" радиусом до 120 км.

Обратили также внимание на дальность стрельбы. Высказан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был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а возможность КНДР наносить массированные удары по важным военным объект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ША в РК, включая главную американскую базу в Пхентхэке, пункт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РК в Керёнэ и прочие. "Дальность полета в 136 км означает, что в зоне поражения находится не только Сеул, но и база США в Пхентхэке, база ВВС в Осане, вплоть до объектов в районе мест Сонтхан, Анчжун, Чхонан, Асан...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заполнение "пуст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торое было в зонах поражения между обычными РСЗО КНДР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Комплексы задуманы так,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нашим и американским военным объектам", - пояснил информгентству "Ёнхап"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НИИ проблем объединения РК Хон Мин.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ервой декаде апреля КНДР провела целую серию других испытаний. Тогда за три дня одно за другим были протестированы ракеты с кассетными боеприпасами, "графитовые" и электромагнитные вооружения, а также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От Севморпути до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В Корее пройдет крупный семинар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ынок РФ

В Южной Корее вновь заговорили о возвращении бизнеса в Россию. 23 апреля в Сеуле пройдет крупный семинар, посвященный перспективам выхода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Подобного рода форумы не проводились в Корее более пяти лет подряд, а теперь,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власти РК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пересмотреть политику, постепенно возобновляя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РФ.

65 месяцев паузы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ИТА) и форум "Диалог Корея - Россия". Согласно появившейся в местных СМИ информ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еминар по вхождению на рынок России-2026" состоится в сеульском комплексе Trade Tower и станет первым подобным форумом с ноября 2020 года, то есть впервые за 65 месяцев. Ранее такого рода брифинги-встречи, где общ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изнеса и эксперты РК, занятые на росси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и регулярными, но затем были временно отменены: сначала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а затем из-за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и введенных против Москвы санкций Запада, к которым присоединился и Сеул. Между тем, до 2022 года РФ была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рынков дл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 примеру,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и LG Electronics занимали там ведущие позиции и конкурировали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своих сегментах.

Теперь, по дан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нтерес к теме вновь растет: участие в семинаре уже подтвердили около 70 компаний (150 человек), а к моменту завершения регистрации ожидается до 100 компаний и около 200 участников.

"Возможно, сейчас напрямую из-за санкций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и сложно действовать на росси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о мы считаем,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хотя бы вести подготовку к выходу компаний на рынок России...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уже обсуждало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иалога Корея - Россия", - цитируют местные С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Программа форума: новые условия, логистика, энергетика, Севморпуть

Содержа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тражает изменившуюся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ую реальность. Семинар включает несколько ключевых блоков: анализ текущего состоя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рынка после санкций, оценку условий для возмож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обсужде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и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вопросы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каналов импорт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глобальному контексту. В частно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ы доклады на темы: "Новая мировая конфигурация на фоне конфликта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и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завершению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Кризис в Ормузском проливе и стратегия выхода на арк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Наблюдатели отмечают, что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факторов, подтолкнувших к проведению семинара, стала ситуация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ынках. Обострение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включая конфликт США и Ирана, внов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уязвимость поставок нефти и газа в Восточную Азию. На этом фоне Росс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ый альтернативный источник ресурсов. До введения санкций Южная Корея активно закупала российскую нефть: в 2021 году - 53,75 млн баррелей; в 2022 году - 20,98 млн баррелей (до введения ограничений).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трасли, доставка нефт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занимала 4-5 дней, тогда как поставки из стран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требуют около трех недель и проходят через нестабильный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Кроме того, на уровне экспертных обсуждений уже звучат предложения рассмотреть закупки российской нефти, нефти и СПГ как часть краткосрочных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торое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транспорт.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все активнее изучает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как альтернативу традиционным маршрутам через Суэцкий канал и Красное море.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ой активностью офици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 бизнеса РК по части СМП стала после включения эт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список 123 основных целе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ой Кореи на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который занял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 июня 2025 года.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ршрут Пусан - Роттердам через Арктику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3 тыс. км и занимает 20-24 дня; через Суэцкий канал - 20,4 тыс. км и 30-34 дня; вокруг мыса Доброй Надежды - 24 тыс. км и 36-40 дней. В итоге для поставки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в Европу СМП и быстрее, и дешевле.

В целом же факт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роведения такого крупного форума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как сигнал к возможному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ынок РФ и возобновлен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еула с Москвой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торговл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Более 12 тонн гуманитарного груза и личных посылок отправили сахалинским бойцам в зону С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частвующих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чередную партию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 личных посылок отправили островным бойцам — 1428 отправлений общей массой почти 12 тонн. В этот раз груз сформирован силами всех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регион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 отправ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волонтер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МЫВМЕСТЕ, волонтеры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 учётом наступления весеннего сезона изменилось и наполнение груза. В состав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ошли лёгкая и сезонная одежда, дождевики, резиновые сапоги, медикаменты, продукты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наборы «Сухой армейский душ»,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мёд, сладости, мясные консервы и другие товар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йцам также отправляют полевую почту — письма из дома, открытки и тёплые пожелания от земляков и школьников. Среди личных посылок —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которые изготов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С первого дн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приехали в ДНР с гуманитарной миссией. Активисты помогают в госпиталях, развозят продукты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работают в архиве.

«Наши волонтеры трудятся в ДНР без выходных. Кто-то помогает в госпиталях, кто-т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дороги и дома, кто-то разбирает архивы. А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мы собираем и отправляем всё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е — от лекарств до писем от школьников. В этот раз отправили почти 12 тонн, и это заслуг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области.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не остаётся в стороне», — Александр Неустроев,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Проект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действу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2022 года. За время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направили в ДНР более 936 тонн гуманитарных грузов. Разбор посылок и доставка занимает около недели с момента отправки. Эта работа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частью систем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по поддержке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я уже второй раз участвую в погрузке гуманитарного груза.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бойцы вовремя получали всё необходимое и чувствовали поддержку из дома. Рад, что могу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общее дело. Особенно здорово, что в этот раз помощь пришла буквально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 Дмитрий Орлов, волонтер.

Собранный груз специальным бортом будет доставлен в ДНР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В Шахтёрске волонтеры гуманитарного центра рассортируют посылки, после чего они будут оперативно доставлены сахалинским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хранят компенсацию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вуз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ит действовать компенсация 50% стоимости за первый год обучения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оступающих в вузы регион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инспекции стройплощадк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Регион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создаёт условия, чтобы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могла получить достой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 выезжая на материк. В 2025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был сдан первый объект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 современ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 тысячи мес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интерес выпускников к островному вузу растёт, в том числе и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ию мер поддержки.

— Завершается учебный год и уже начинается работа над организацией новой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уз примет на первый курс около 700 человек. Это на 2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роме того, мы выделили пятьсот субсидий на возмещение 50% стоимости обучения для ребят, которые не смогут поступить на бюджетные места в наш университет,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ост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лучает ежедневный отчет о темпах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е, который воз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ору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 нацпроекту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ехн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40%.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в две смены трудятся 410 человек.

— Уверенно идем в графике по монтажу светопрозрач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и утеплению фасада. С 1 мая начнем обустройство кровли. Задача — до 30 июня обеспечить завершение гидроизоляционного контура здания. Э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тупить к монтажу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слаботоч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рокладке кабельных сист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всех блоксекциях начнется работа по черновой отделке, — долож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Ласточкин.

Параллельно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закупается современное учебное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хнические задания для оснащения лабораторий формируются совместно с учеными. Запуск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декабрь 2027 года. Он сможет принять порядка 2,5 тысячи студентов.

Кампус площадью свыше 88 тысяч м² станет еди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для обучения, науки и внедрения разработок. В центре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библиотека и лекционные залы, оранжерея, бассейн и два спортивных зал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 университет налажива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индустр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СахГУ уже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опорного вуза Газпром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пускается магисте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Обустройство и эксплуатация морских нефте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Она посвящена подвод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добыч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на шельфе.

— Наша компания реализует на шельфе проект «Сахалин-3», где Газпром впервые применил технологию подводной добыч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Более 15 лет мы накапливаем опыт, уникальный не только для нашей компании, но и для России в целом. Наша задача — передать его новому поколению. Мы делаем это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 разрабатываем совместные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студентам перенять этот опыт на практике, на наших месторождениях. Основная цель — чтобы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учили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остались работать на остров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алерий Гурьянов.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открыли нов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и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монту фасада школы № 1

Исполнение еще 13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региона проверила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Ревизоры осмотрели жилой фонд и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учреждения, а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жителей.

В рейде участвовали сотрудники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ктивисты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Как выяснили проверяющие, шесть поручений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ыполнены. Так, по просьбам жителей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открыт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Здесь созданы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тренировок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футболу, самбо, дзюдо.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отделение эстетической гимнастики.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жителей пользуется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 И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ходят, и юные девушки, и даже пенсионеры. У нас есть четыре категории льгот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бесплатно. Это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молодые мамы, ветераны СВО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Уровен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тал намного выше, жители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рассказал инструктор тренажерного зала.

Контролеры побывали на горе Молодежной, где обустроена единственная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горнолыжная трасса.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десь установили канатную дорогу и безопорную буксировочную дорогу для детей младшего возраста, приобрели снегоход и снегогенератор. Ежегодно именно в этом месте открывают сезон горнолыжники со всего региона. На одной из встреч с населением главе области поступила просьба обустроить раздевалк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рядом с трассой. Она тоже была выполнена.

—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стал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ся в районе благодаря Валерию Игоревичу. При его прямом участии мы имеем такой подьемник, искусственное освещение и условия, чтобы база располагалась именно на горе. Раньше дети переодевались в районе стадиона, потом их на снегоходах доставляли сюда.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наших ребят высокий. Многие входят в сборну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оевывают призовые мест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вице-мэр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Татьяна Бабаевская.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посетила школу № 1, гд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ступили к капиталь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фаса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техн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40%. Ревизоры рекомендовали подрядчику ускорить работы, чтобы уложиться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Важным пункто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а оценка состояния жилого фонда.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несколько поручений главы региона еще не выполнены. К примеру, не остеклены балконы в доме № 13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Как пояснили в мэрии, подрядчик отказался проводить эти работы, так как они не входят в проект.

—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поручения продлевались неоднократно. Однак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даже не проведено собрание собственников и н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за счет каких источников и кем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эти работы.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выполнены до 1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 напомнил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контр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Князюк.

На контроле останется и ситуация с подвалами в домах № 3 и № 5 по улице Карла Маркса. Помещения топит грунтовыми водами.

— Это дома 2021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Проблему мы выявили ещ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гда приезжали в рамках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Как поясн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дрядчика, здесь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приямки и установят

насос. Но по решению суд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 обустройство дренажной системы. Мы обратились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КХ, чтобы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работа с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и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для исполнения решения суд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отде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на Силачева.

Во время рейда ревизоры заехали в село Михайловка и навестили Ольгу Калмыкову.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просила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кровлю двух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по улице Клубной, в котором она проживает. Ольга Тимофеевна подтвердила — работа выполнена на совесть.

— Раньше и в кухне, и в зале текло, потому что все сгнило. Кровлю поменяли, и стало хорошо. Спасибо! — отметила она.

Доклад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ы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слушает лично.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фессий знакомятся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Более 500 школьников посетили Фестиваль профессий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ощадки, на которых молодые люд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были развернуты 17 апрел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России напрямую зависят о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касается любого сектора экономики: от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д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компаний. Поэтом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тране был запущен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Кадры». Фестиваль професс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ярмарк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Работа России. Время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т молодым людям выбрать подходяще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оценить свои перспективы на рынке труда.

—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ужны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наши острова. Чтобы их получить, нужно работать с сегодняшним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и. А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укреплять связь между школой, вузом и работодателем, чтобы молодые люди 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ей и осознанно сделать выбор. Например,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школьники узнают о том, ка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остребова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колько они зарабатывают, гд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ерспе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ое обещает успех в жизни.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и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й 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молодые люди могут принять взвешенное решение в пользу дальнейшего обучени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помещении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были размещены экспозиции 21 работодателя. Они представили свыше 400 вакансий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энергетике, торговле, производстве, на транспорте, в сферах услуг,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зонах, посвященных робототехнике, беспилотным летательным аппаратам, цифровым решениям, медицине, сфере услуг и креативным индустриям, школьники могли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офессиями, и лучше понять, что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о.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экспози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ехникумов и колледже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информацию о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ях. Это, например, нефтегазовое дело, медици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сервис.

Ученица 10 класса школы № 5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астасия Антроп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такие площадки, как Фестиваль профессий, помогают молодым людям узнать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для учебы и работы в регионе и понять, в ка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им хочется развиваться.

—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что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ные профессии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Это поможет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будущем более осознанно. Я хочу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творчеством, стать актрисой и учиться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Тем более, что у нас открыли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 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Руслан Путымаков приехал на мероприятие из Анивы. Для него важно, что Фестиваль подтвердил: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ожно и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здесь так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ы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особенн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Я хочу стать химиком-биологом и считаю, что учиться в нашем вузе, а потом работать на Сахалине — хороший и перспективный путь, — добавил ученик школы № 1.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100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ни предложили свыше 1000 ваканс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전 세계 재외동포 목소리에 답하다

관계부처 검토 거쳐 1,438건에 대해 답변 진행 중 미해결 사안은 범정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책임지고 풀어나갈 것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전 세계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 동포 사회 민원·건의사항 1,438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단체를 통해 들어온 애로사항 29건도 답변 진행 중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 “잘 보이지 않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민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민원을 귀하게 여겨 달라”(2026.4.6. 국무회의)

** “전 재외공관은 교민 관련 조직, 언론 등 다양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 사회의 민원과 의견을 빠짐없이 청취하고 분류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어려운 부분은 외교부,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가능한 방안을 찾아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2026.1.4. 베이징)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민원,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공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34개 관련 부처*와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다.

* 재외동포청,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원행정처, 병무청, 금융위,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청,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통일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 조달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검토 민원 개수 順)

이번 조사에서는 '차세대·교육' 분야 건의가 354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포 정책·제도'(248건, 17.2%) '동포단체 지원'(197건, 13.7%), '국적·비자·병무'(195건, 13.6%) 개선 관련 건의가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195건, 중국 138건, 일본 119건, 캐나다 54건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동포들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개선, △북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거주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 정부 지원, △순회영사 확대 시행, △동포단체·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전자여권 등 활용 본인인증)나 재외공관 인턴십 사업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동포사회에 답변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의 핵심적인 어려움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많은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바라는 점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한번 듣고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챙기는 기관이 되겠다”며, “5월 2차 민원 조사와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가며 ‘동포 민원 제도’를 실현하고, 동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일동포 교육의 뿌리를 만든 조규훈"... 이달의 재외동포

재외동포청,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 로 故조규훈 민단 중앙단장 선정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일동포 사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故조규훈(1906-2000) 재일민단 중앙단장을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용공을 돌보고 공동체를 만든 삶
조규훈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포들을 지원했다.

특히 1944년 정용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공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백두동지회'를 결성해 정용공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립을 도왔다.

또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약 600명의 동포 귀국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동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의 기반 마련
조규훈 단장은 “기술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1946년 오사카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사재 200만 엔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백두학원(건국학교)'을 설립해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학교는 1949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계 학교 중 유일하게 정규학교 인가를 받아 재일동포 민족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현재까지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되며 재일동포 사회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모국과 재일동포 사회에 대한 헌신
조규훈 단장은 모국과의 연결에도 힘썼다.

1949년 주일대한민국대표부 설립 당시 힘을 모아 1천만 엔을 지원하고, 관저 구입에도 300만 엔을 보태 외교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고향인 제주도에 조선중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고향 교육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재일민단 중앙단장으로 활동하며 조직을 정비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조규훈 단장은 자신의 삶을 동포 사회와 조국을 위해 바친 분”이라며, “그의 노력은 오늘날 재일동포 사회와 모국을 잇는 기반이 됐다.”며 “그의 삶과 공적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뜻에서 4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계속 국제결혼 한인 여성은 몇 명이나 될까?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추산 50만명...

가족 포함하면 '지한파' 연결망창립 20주년 맞은 단체, 독일 하노버 회의서 미래 20년 설계 10월 강원도 강릉서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제결혼 여성, 세계를 잇는 다리"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국제결혼 한인 여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식 통계는 없다. 각국에서 현지인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특성상, 한국이나 특정 기관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 이하 월드킴와)는 자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평균 4인 가족으로 확장하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지한(知韓)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각국 사회에서 한국을 알리고 연결하는 '생활 기반 민간 외교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월드킴와는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에 정착한 한인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교류 확대를 위해 출범한 글로벌 비영리 네트워크다.

2006년 10월, 언어와 문화 차이 속에서 고립을 경험하던 여성들이 “서로를 돕자”는 공감대에서 시작한 월드킴와는 20년만에 미국·유럽·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 지부를 세우는 등 확장된 조직으로 성장했다. 현재 각국에서 ‘보이지 않는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월드킴와의 활동은 단순한 친목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회원들은 각국에서 한식과 전통문화 소개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교육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2~3세를 잇는 활동은 장기적으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가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사회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생활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월드킴와는 지난 4월 8~15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제10대 회장단 출범식과 임원·이사회 회



의를 열었다. 미국, 하와이, 호주, 프랑스, 독일 등에서 모인 22명의 임원진은 차세대 참여 확대 방안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제로 놓고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순복 총회장은 향후 2년간의 운영 방향을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정했다.

특히 오는 10월 강릉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세계 각국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월드킴와의 20년은 조직의 성장사이자, 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의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타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쌓아온 이들의 경험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한국과 세계를 잇는 집단적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복 총회장은 “마음을 다해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며 “앞으로도 감사와 연대로 세계를 잇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숫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들의 연결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한국의 또 다른 외연을 넓히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онкая нить повседневных открытий связывает эпизоды, делая повествование естественным, как сама жизнь.

Главные роли детей исполнили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Ксения Ермакова, Илья Ловкин, Евгений Мурадян, Дарья Рвачева, Алиса Тянь. Они оживили персонажей русских поэтов, показав их как юных личностей с яркими характерами. Герои в «Детках-конфетках» — это живые портреты, в которых каждый зритель узнает себя и своих детей.

В качестве литературной основы для своего проекта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выбрала избранные детские стихи советских и русских поэтов, которые многие взрослые помнят с детства. Со сцены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Агнии Барто, Самуила Маршака, Елены Благиной, Сергея Михалкова. Эти тексты легки для восприятия, легко запоминаются и несут глубокий воспитательный посыл, то есть совмещают эстетически приятное с этически полезным.

<우리가 청소하러 간다> 토요 청소 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식물원에서 진행

<우리가 청소하러 간다> 청소의 날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식물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청년 대표들을 비롯해 사회단체 대표, 노인자원봉사자, '통합 러시아'당 유즈노사할린스크 지부 자원봉사자, '승리의 자원봉사단', '최고들의 활동', '에코시스템' 환경보호운동 회원들이 참가했다고 사할린 지역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식물원에서 지남해를 넘긴 낙엽과 솔방울들을 치우고, 모든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흩어진 나뭇가지들과 통나무들을 수거했다. 작업 후 참가자들은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다.

토요 청소의 날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공장소의 질서와 청결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활동의 한 부분이다. 4월 초에 대규모 환경정화의 달이 시작되어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24일에는 <깨끗한 금요일>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마당과 공원, 소공원 청소를 위한 쓰레기봉투, 장갑, 갈퀴 등 청소 도구를 제공한다.

전 러시아 토요 청소의 날은 4월 25일에 진행된다. **Субботник «Мы за чистоту» прошел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убботник «Мы за чистоту» прошел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субботник «Мы за чистоту». В нем по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волонте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Единой России,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и члены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Экосистем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дружно убрали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прошлогоднюю листву и шишки, собрали весь мусор, вынесли валежник — ветки и бревна. После работы добровольцы также накормили белок.

Субботник стал часть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акци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порядка и чистоты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сштабный месячник чистоты стартовал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в его рамках также проводят «чистые пятницы», ближайшая пройдет 24 апреля. Жителя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инвентарь (мешки, перчатки, грабли) для уборки дворов, скверов и парков. 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убботник проведут 25 апреля.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КОРБИМ... УШЛА ИЗ ЖИЗНИ ОСНОВАТЕЛЬ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ДШИ «ЭТНОС»

ЭЙДИНОВА НАТАЛИЯ СЕМЕНОВНА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была не просто директором, она была основателем и душо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её энергии, таланту и безграничной преданности делу в 1991 году распахнула свои двери школа, ставшая вторым домом для сотен ребятишек.



Это невосполнимая утрата для всего наш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Человек огромной души, таланта и созидательной энергии. Выражаем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е, близким, коллегам и всем ученикам разных лет. Память о ней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в стенах школы, которую она создала и которой дышала.

Мы скорбим. Мы помним. Мы благодарим.

ДШИ «Этно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인 나탈리아 세묘노브나 에이지노와 별세

나탈리아 세묘노브나 교장선생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설립자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재능,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991년 학교가 문을 열 수 있었고, 우리 학교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제2의 집이 되어주었습니다.

에이지노와 선생님의 별세는 사할린 문화계 전체에 있어 메울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넓은 마음과 재능,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졌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제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녀가 창립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학교 곳곳에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슬퍼합니다. 기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예술학교 '에트노스'의 설립자이자 초대교장인 나탈리아 세묘노브나 에이지노와 선생이 2026년 4월 23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에이지노와 선생님은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전체가 깊이 감사드리는 분이십니다. 러시아 민속음악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통 예술(음악, 무용 등)을 사할린에 유지·보급·발전할 수 있도록 온 영혼과 열정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지역 문화계에 남긴 그분의 거대한 족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독자를 대표하여 새고려신문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애에 잠긴 유족과 동료, 그리고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

에게 깊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애도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Ушел из жизни светлый человек, основатель и первый директор ДШИ «Этнос» Наталья Семёновна Эйдинова. Незаурядная личность, которой благодарна вс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Энтузиаст, вложивший всю душу и энергию, чтобы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вивались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музыка и корейское традиционное искусство. Значение ее личности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 лица всех читателей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е, близким, коллегам и ученикам ДШИ «Этнос».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광고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8(4242)43-59-80.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